

‘제3순환선’ 광주·전남 상생 시험대

〈광주~나주~장성~담양~회순간 100.86km〉

광주시, 2019년까지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 산업·상업기능의 분산, 도·농 균형발전 등 계기될 듯

광주시가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순환고속도로사업(제3순환선)이 광주·전남 상생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이 사업을 계기로 광주광역권에 해당되는 화순·담양·나주·장성 등 전남지역 시·군은 물론 전남도와 신규 메트로폴리탄 사업 및 광역경제발전계획과의 연계, 협력의 활성화로 사업완성도 제고 및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한 협약 체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담초 시는 연말까지 이들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려 했으나, 전남도와 일부 자치단체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내년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에 따르면 나주 급천(송촌)~장성 진원~담양 대덕~회순도곡~나주를 잇는 광주순환고속도로(100.86km)는 오는 2019년까지 모두 3조5천69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기반시설사업으로, 3구간(장성 진원~담양 대덕, 17km)이 지난해 초 개통됐으며, 1구간(나주 급천~광산 본량, 14.85km)이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2구간(광산 본량~장성 진원, 19.55km)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중에 있는 등 외곽순환도로가 완성될 경우 광주와 전남의 화순·담양·나주·장성 등이 멸실상부한 하나의 경제권 및 생활권으로 묶일 전망이다.

시의 협약 추진 배경에는 이 외곽순환도로를 단순한 교통기능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상업 기능의 분산, 도·농의 기능분담, 균형발전 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광주와 이들 시·군은 도시의 거의 모든 기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광주와 전남을 따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권 내에서 서로 상생의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각 시·군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동의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장성군의 경우 외곽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 가뜰이나 인구감소를 고민하고 있는 전남도는 자칫 이들 4개 시·군이 ‘광주로의 흡수 통합’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생협력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한 뒤 시의 제안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완공 예정인 광주순환고속도로 현황



장성군 관계자도 “현재는 민원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답은 미뻤지만, 군정 직원 70%가 광주에서 거주하고 통근하는 상황에서 광주와의 상생 협약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내년 군정에서는 이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순환고속도로라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광주와 전남이 경제는 물론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상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태파노를 기리는 삼종 기도를 집전했으며, “자신의 믿을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황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올해 82살인 교황은 이날 성(聖)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도와 관광객 앞에서 그리스도교 최초 순교자인 성

알카에다, 美 여객기 테러 기도 불발

‘테러범 제압’ 영웅은 네덜란드 영화감독

성탄절 휴일을 노린 알카에다의 여객기 내 폭탄 테러 기도가 미국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승객 278명과 승무원 11이 탑승한 미국의 노스웨스트(델타와 합병 진행 중) 항공 소속 에어버스 330 여객기가 지난 25일 정오(현지시간) 디트로이트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기내에서 알카에다 조종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폭탄 테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용의자는 나이저리아 국적의 우마르 파루크 압둘무탈라브(23)로 확인됐으며 KLM항공편으로 나이저리아라고스를 떠나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후 노스웨스트항공편으로 갈아타 테러를 기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나이저리아의 저명한 전직 은행가인 우마르 무탈라브는 26일 용의

자로 체포된 우마르 파루크 압둘 무탈라브(23)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폭탄테러 사건의 범인을 최초로 제압한 ‘영웅’은 네덜란드인 승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뉴욕포스트는 26일 인터넷판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노스웨스트 항공 253편을 타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려 오던 아스퍼 슈링거라는 네덜란드 영화감독이 폭탄을 터뜨리려던 범인 우마르 파루크 압둘무탈라브를 제압했다고 전했다.

슈링거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범인의 좌석에서 약간 뒤인 20J 좌석에 앉았던 그는 폭죽 터지는 소리가 난 자신의 좌석 왼쪽을 봤다. 그는 “좌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지체할 수 없었고, 바로 (그쪽으로) 점프를 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미 델타 항공 여객기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한 뒤 미 전역의 공항과 항공사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된 가운데 26일(현지시간) LA 국제 공항 델타/노스웨스트 항공사 창구 부근을 경찰이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탄테러·납치·선박화재·교량붕괴... 광! 악! ...지구촌 ‘블랙 크리스마스’

이스라엘군, 점령지서 ‘팔사’ 6명 사살도

이스라엘군이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점령지 서안 지역과 가자지구에서 모두 6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날 서안 지역 나블루스의 주택가를 급습해 마무드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정파인 파타 소속 무장조직원 3명을 총으로 쏘아 살해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 당일인 25일에도 이라크와 베네수엘라, 필리핀,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폭탄테러와 선박 화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라 사상자가 속출했다.

25일 이라크에서는 바그다드 동부 거리를 지나는 이슈라(시아파 기념일) 기념 행렬 옆에서 폭탄이 터져 6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등 이날 전역에서 18명이 테러와 납치 등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수십여명이 부상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라크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전역에서 시아파를 대상으로 한 수니파 무장세력의 공격 등 폭탄테러가 잇따라 발생, 수십명이 사망했다.

또 성탄절 새벽에는 베네수엘라 북쪽 160km 해상을 항해하던 그리스 국적 벌크선에서 불이 나 승선원 24명 가운데 9명이 사망하고 2

명이 부상했다.

‘에이지언 윈드’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철광석 3만7천t을 싣고 브라질에서 미국 휴스턴으로 가던 중이었고, 오전 4시께 선내 식당에서 갑자기 불길기 치솟았다고 선박 소유주는 AP통신에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25일 새벽 제너럴 산토시의 한 불꽃놀이용품 판매점에서 폭죽이 터져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현지 경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24일 저녁 인도에서는 라자스탄주 참방강에 건설 중이던 교량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가운데 최소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성탄 미사 ‘봉변 당한 교황’ 삼종기도 집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성탄 미사에서 갑자기 뛰어난 여성에 데밀러 넘어지는 봉변을 당했으나 이틀만인 26일(이하 현지시간) 건강진 모습으로 삼종기도(Angelus)를 집전했다.

올해 82살인 교황은 이날 성(聖)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도와 관광객 앞에서 그리스도교 최초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를 기리는 삼종 기도를 집전했으며, “자신의 믿을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황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곤경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으나, 지난 24일 성탄 미사에서 갑자기 복도로 뛰어든 여성 미사객에게

데밀러 넘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교황청은 소동을 일으킨 여성이 스위스-이탈리아 국적의 수산나 마이올로(25)라고 26일 밝혔으나,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탄 미사에서 함께 봉변을 당한 로제트 에세가라이(87) 추기경은 그러나 27일 대퇴부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로마르디 대변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권운동가 무단 입북... 북미대응 주목

北 인권개선 촉구 의도...美 여기자 사건때와 상황 달라

재미교포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28 사진)이 지난 25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북한으로 무단 월경한 사건이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세계 북한 인권 및 탈북자 관련 100여개 단체가 네트워킹하는 ‘자유와 생명 2009’ 대표인 그의 북한 영토 무단입국은 지난 3월 발생한 미여기자 월경 사건의 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씨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박씨의 석방 문제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첫 북미 고위급 대화에 이은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이번 사건은 탈북자 문제를 취재 중 의도하지 않게 북한 국경에 진입했던 여기자 사건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자 사건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 인권개선 촉구라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북한 국경을 넘어갔다.

또 박씨가 입북을 감행하기 전 가진 일부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 억류되더라도 여기자 사건처럼 미사건처럼 미국 정부가 자신을 구해줄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도 명확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이나 미국의 추후 대응이 미국 국적의 여기자 석방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까지 이어졌던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Seogi Bocheongi
Seogi's Bocheongi
Seogi's Bocheongi

1578-8449/011-322-9100